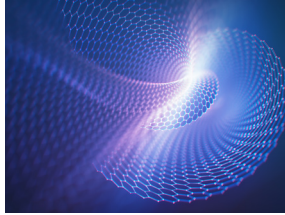




2023  
VOL.03

# 지식공유 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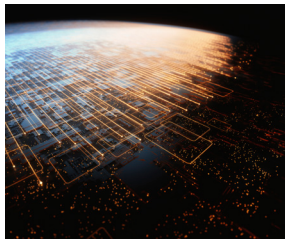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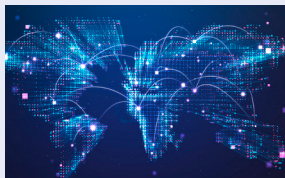


## 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소식

YKSP 7기 소개



## 행사

2023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KDI-ADB-ADBI 공동 컨퍼런스: 아시아 녹색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





##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한양대 국제학부 학장  
김연규

youn2302@hanyang.ac.kr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면서 핵심광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세기 석유·가스시대에서 21세기 핵심광물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a shift from fuel-intensive to material-intensive)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배(반도체 배터리) 보호 무역 장벽을 쌓고 핵심광물 확보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함에 따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제정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광물' 배제를 최우선 목표로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밖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EU는 배터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ESG를 제시하고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입법화를 공식 선언했다.

핵심광물은 모두 중요하다. 전기차의 구동모터, 풍력터빈, 각종 군사무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을 위한 희토류와 리튬이온 배터리(LIB)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이 최근 국가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광물들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세계경제에서는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는 어떤 국가도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군사적 안정도 유지할 수 없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도 배터리 수요 증가와 소재 공급 부족으로 리튬 가격의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약 45만 톤 정도의 전세계 리튬 수요는 2030년 200만 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세기 석유·가스 시대에 전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은 중동 아시아와 러시아 등 석유·가스 자원 부국과의 협치에 달려 있었다. 국내 부존자원이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틀 속에서 확장된 에너지 안보를 제공받았다.

한·미 석유·가스 에너지 안보를 기본 틀로 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앙·중동 아시아 등 자원부국들과 한·미 에너지협력 밖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안보 다변화 및 협력관계를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자원부국들은 오일 달러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다각화가 시급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동 등의 지역에서는 경제적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에너지도 확보하고 자원 부국들의 경제개발과 발전도 돕는 상생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자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 자원이 이번에는 핵심광물이다. 핵심광물은 기본적으로 금속들이다. 철광석, 텅스텐, 구리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금속들이 대규모로 채굴되고 소요되는 것과 다르게, 핵심광물들은 소규모로 채굴되고 소량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핵심광물은 석유·가스, 전통광물보다 채굴과 생산이 훨씬 더 일부 국가에 편재되어 있다. 핵심광물은 복잡한 정·제련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고 핵심광물 가공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산업의 원자재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인 배터리산업을 가진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첨단산업과 핵심광물 경제 안보 체제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세기에 석유·가스 자원부국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고 석유·가스 무기화를 도모했듯이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핵심광물 자원부국들에 의해 OPEC과 유사한 핵심광물 수출국 카르텔의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일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K-방산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유럽의 자국보호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생존전략의 하나로 개도국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관계강화와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국가들과 핵심광물의 개발, 가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과 같은 다각도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 핵심광물 별 자원부국 (개도국 위주)

핵심광물	자원부국 (개도국 위주)
희토류	베트남
리튬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켈	인도네시아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
흑연	탄자니아

출처: 저자 작성

우선 자원위주 산업을 가진 자원부국들의 경제개발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거점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친환경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 환경과 인권

규제 등 ESG 관련 투자 기준이 핵심광물 개발 프로 젝트에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자본이 지배하는 전세계 다수의 핵심광물 광산은 ESG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친환경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높다. ▣

#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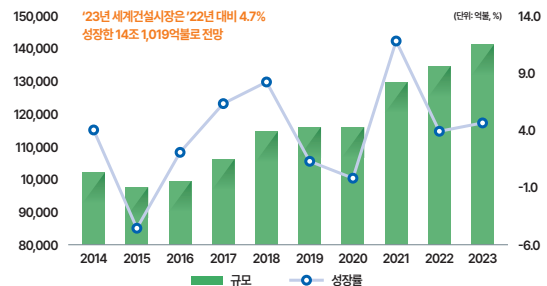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센터장 정창구  
cgjung@icak.or.kr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5,000억 불 규모의 네옴(NEOM)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의 330억 불 규모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에 한국기업이 민관합동의 지원단을 꾸려 적극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뉴스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해소되면서 선진국·개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은 중장기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국의 재정 여건보다 무리한 수준의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발표하기도 한다.

IHS Markit 발표('23.4월)에 따르면, 세계건설시장 규모를 지난해(13.5조 달러) 대비 4.7% 성장한 14.1조 달러로 전망 하면서 특히 중국, 인니, 인도, 호주, 이란,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등의 건설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은 모든 대륙에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8.2%)와 중동(8.0%), 유럽(5.6%), 아시아-아프리카(각 5.0%)지역의 성장률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세계건설시장 규모·성장률 추이 및 전망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표 1>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불, %)

구분	2022	2023	성장률
중동	6,246	6,744	8.0
아시아	66,001	69,309	5.0
북미·태평양	24,575	25,017	1.8
아프리카	1,114	1,166	4.7
유럽	30,691	32,215	5.0
중남미	6,069	6,567	8.2
합계	134,696	141,019	4.7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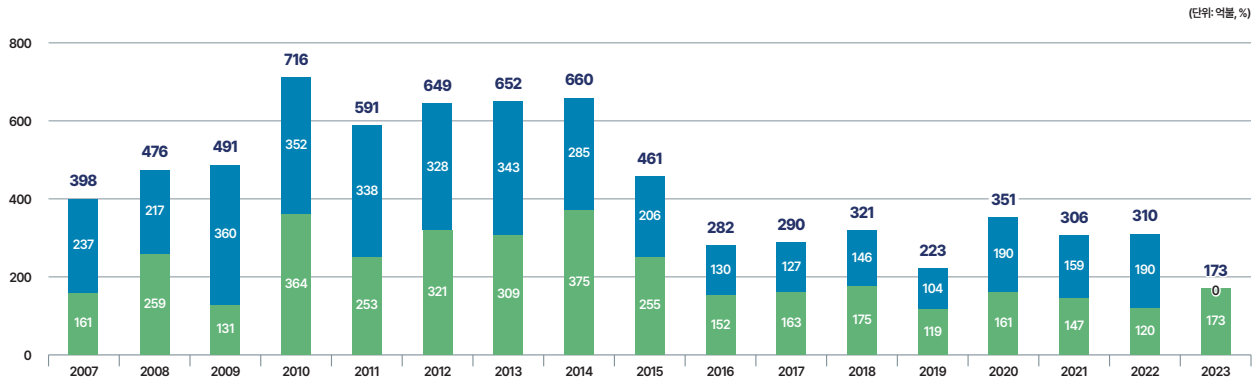
이러한 세계건설시장 확장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수년간 어떠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다.

참고로 외국기업에게 개방된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통상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약 4% 정도로 추산하는데, 올해 기준 5,640억

불(14.1조×4%) 정도의 시장을 두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던 200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해외건설 수주 추이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파란색은 하반기/초록색은 상반기 수주액)

187억 불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했던 2010년에 716억 불 수주 이후 4~5년간 600억 불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였으나, 이 시기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펼치다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더 이상 무리한 해외 진출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후 기업별 수주 전략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 하였으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정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건설사들의 역량도 크게 향상된 상황이고 특히 신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간 계약(G2G)을 통한 수주지원과 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컨소시엄(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등)을 팀코리아 형태로 꾸려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23년 목표를 350억 불, 2027년까지 연간 500억 불 수주에 이어,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sup>1)</sup>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가능해 보이는 것은 대외 환경 변화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국제유가에 민감한 해외 건설산업의 특성상 유가가 일정 수준(대략 배럴당 70불 수준) 이상 유지된다면 우리의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 등에서의 대규모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공급망 불안 등 부정적 요인들도 상존하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각국에서의 경기부양 목적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발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 22년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인건인「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



특히 최근 주목되는 점은 선·후진국, 산유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과거처럼 단순히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는 도급형 사업의 발주는 점차 줄고, MDB(다자개발은행)나 ODA 재원 등을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써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는 점이다. 즉, 원활한 PF(프로젝트금융) 조달 등을 위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을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Phase 별로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비수익성 사업에 지원하는 ODA 재원을 이와 같은 대형 인프라 개발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주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규모가 큰 민간금융을 PF 형태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원국들은 PPP 법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참여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ODA 재원을 활용한 사업과의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며, 최근 들어 많은 사업들(사우디 NEOM, 인니 신수도사업 등)이 PPP(민관협력사업)를 통한 투자개발형사업 방식과 혼용하여 발주되고 있다.

<표 2>는 최근 5년간 발주 재원별 우리 기업의 수주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계약보고 시점에 따른 편차가 있긴 하나, ODA 및 MDB 재원으로 발주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발주재원별 수주액 현황('18~'22)

구분	합계	정부재정	MDB	ODA	ECA	FUND	PPP
2022년	314.9	255.7	16.9	13.6	△5.2	21.0	7.7
2021년	305.9	265.8	1.7	5.3	0.1	1.7	31.3
2020년	351.3	274.2	12.9	47.6	0.5	0	16.1
2019년	223.2	184.0	8.9	9.3	2.6	0	18.4
2018년	321.2	294.8	2.2	11.4	0.2	0.7	11.9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프로젝트로의 획기적인 전환 움직임(수소, 원전 등)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참여 기회도 상존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 등 향후에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과 더욱 치열한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경쟁 등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 해외 건설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지난 7~8년간 지속되어 온 300억 불 수준의 박스권을 벗어나 레벨업하기 위해서 우선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 제언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업참여자(Stakeholder)들이 다양한 개발 재원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둘째, 국내 ODA 지원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무썽 정부와 해외 건설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 국제협력플랫폼, KSP의 의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 팀장 이미연  
leemy@kdi.re.kr

플랫폼은 과거 기차를 타고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었으나, 이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e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메신저,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충분한 사용자 그룹을 형성한 후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총 순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입사 희망 기업 조사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정부24 등)를 제공하거나, 정부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MDIS 등), 공공자원을 대여하는 공유경제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술한 공공영역의 플랫폼이 정부의 서비스나 데이터의 대국민 전달에 대한 용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우리 정부의 지식공유사업(이하 'KSP')은 2개 이상의 사용자 그룹의 수요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의 근본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KSP의 플랫폼모인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사회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은 협력국들의 수요와, 기존의 유무상 ODA 체제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로 투입되었던 정책(지식)전문가들의 협력사업 참여 수요를 연계하여 KSP라는 지식기반 협력사업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림 1] KSP 플랫폼 개념도



출처: 저자 작성

KSP는 플랫폼의 중요한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 또한 이끌어 냈다. 지식수요자 그룹인 협력국은 2004년 출범 당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 불과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91개국(누계)까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9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개국, 중남미 22개국, CIS·유럽 18개국, 중동·북아프리카 12개국에 해당되며,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의 KSP 양자협력 외에도 다자협력<sup>1)</sup>, 지역별세미나<sup>2)</sup> 등을

1 MRC(메콩강위원회) KSP, ASEAN KSP, V4(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KSP 등

2 헝가리에서 개최된 유럽지역별 세미나(17)에 EBRD, 세르비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KSP 협력을 함께 논의하고 KSP 신규사업 제안 및 참여

통해 상호 교류 및 소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식공급자 그룹인 국내 전문가 그룹은 2004년 출범 당시 1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사업 기준 950여 명(누계)까지 확대되었다. 출범 초기에는 KSP 주제의 대부분이 정책수립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학계와 연구자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으나, 협력국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기술적 요소에 대한 종합자문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실무전문가, 민간전문가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과거 재정정책에 대한 KSP가 연구자, 교수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연구자, 교수와 함께 재정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자문하는 실무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며 상호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협력을 추진 중이다.

협력국은 KSP를 통해 한국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KSP 사업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KSP는 플랫폼으로서의 추가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박희준(2022)<sup>3)</sup>이 강조한 요인 중 킬러 콘텐츠, 품질 관리, 매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를 뜻하는 킬러 콘텐츠는 플랫폼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KSP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제발전경험'이라는 세계 유일의 킬러 콘텐츠를 체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관리는 교환되는 가치 및 가치 교환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리를 뜻하는데, 교환가치(자문내용)는 자문평가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호작용에 대한 관리(사업관리)는 KSP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KDI 등 기관들의 전문성을 통해 수준 높게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으로서 KSP의 매력은 협력국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의 직접적인 협력(공동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컨설팅에 비추어 보아도 '수진기업의 참여도가 컨설팅 재구매(만족도 등)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부합하며, KSP 현지 전문가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양국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 기회 제공'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플랫폼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성공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은 소수에 불과한 이때, 정부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KSP를 더욱 발전시켜 지식기반협력의 토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플랫폼의 경우, 거대 네트워크 기반 시장의 우월적 지위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지만, 공공의 국제협력 플랫폼인 KSP가 선도하는 지식기반협력 체계와 거대한 네트워크는 그 활용을 확대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KSP 협력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산업, 사회, 무역, 보건, 환경, 국토, 농촌, 고용, 에너지 등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추진된다. 또한 KSP의 협력국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고소득국, 자원부국 등까지 포괄하므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외경제전략과 협력의제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체제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화상회의 툴이 소개되었으나 ZOOM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은 이미 ZOOM의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편의성을 경험한 사용자 그룹이 Lock-in되고 신규 사용자를 ZOOM 시스템으로 이끈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ZOOM은 다른 플랫폼과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였지만, KSP는 작은 협력플랫폼(협력사업)과 경쟁하는 대신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원하여 우리 정부의 대외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지식기반협력사업인 KSP의 브랜드를 확대하고 효과성을 제고하여 대외경제전략 지원과 경제협력 촉진까지 일관되게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박희준, 『플랫폼노베이션하라』, 김영사, 2022.

##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이민·다문화연구원 원장 오정은  
mouton3@hansung.ac.kr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개발협력

2020년 초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비대면 업무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가 증폭되었고, 빈부 격차도 심화되었다. 이제 COVID-19는 엔데믹 상태에 진입하였고,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의 중요도는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 개인을 넘어 국가 간 빈부 격차에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에서도 개도국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개도국 디지털화는 당분간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최우선순위 과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세계 주요 원조국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개도국의 디지털화 지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디지털화 지원이 수원국의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발전까지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원조국들의 고민이 깊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개도국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디지털 분야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디지털 분야의

개발협력은 유럽 고유의 장점인 상대국가 맞춤형 개발협력 노하우와 인권 강조를 통해 차별화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 유럽연합 개발협력 정책의 특성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에는 유럽연합 고유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수원국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정책을 전개한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은 처음부터 수원국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 창립 회원국이었던 독일(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대부분 과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 유럽공동체 개발협력 정책이 회원국이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에서 발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공동체가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새로운 회원국이 되면서 회원국의 구식민지 범위가 아시아 및 남미 지역으로 확장되고, 유럽연합이 수원국 맞춤형 원조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 범위도 전 세계 주요 개도국으로 확장되었다.

둘째는 개발협력 정책을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과 연계한다는 사실이다. 개발협력 상대 수원국들은 경제적 낙후성뿐만 아니라 정치 불안과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은 개발협력이 상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인지 함께 고려한다.

## ●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정책 발전

유럽연합 개발협력 정책에서 디지털 분야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2017년 5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원업무 문서로 “개발을 위한 디지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정책으로(Digital4Development: mainstreaming dig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o EU Development Policy)”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 20일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D4D 정책이 승인되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D4D 정책이 국제무대의 주요 개발협력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2017년 11월 29-30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된 제5차 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를 두 대륙 간의 협력 영역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분야를 개발협력 분야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어서 2018년 9월 12일에 당시 유럽집행위원회 용커(Jean-Claude Juncker)위원장이 지속가능한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유럽-아프리카 동맹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가 구성됨으로써 유럽연합의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초기의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은 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사이의 디지털 협력 합의를 토대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점차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유럽연합의 디지털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 ACP-EU 연구혁신프로그램(ACP-EU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BELLA 프로그램, PRIDA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가. ACP-EU 연구혁신프로그램

유럽연합이 ACP 국가, 즉,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의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천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분야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개발협력 증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부기관 이외에도 민간기관이 지원을 받는다. 서인도 제도 대학, 프랑스어권 대학, 아프리카 농업 연구 포럼, 프랑스어권 개발연구소, 태평양지역 커뮤니티 등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술, 지식 및 혁신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간주하고, 2030년까지 개발협력에서 연구, 혁신 및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CP-EU 연구혁신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과거의 ACP-EU

협력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온 지원을 계승하고 확대한 성격이 강하다. 과거에도 유럽연합은 ACP 국가들의 과학, 기술 및 응용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R&I(연구 및 혁신) 이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육성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APC 혁신기금을 통해 연구혁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관련된 주제로는 디지털 리더십 및 신기술 사용에 대한 접근성 증가, 노동 시장 수요와 R&I 기술 개발 간의 연결성 향상, 민간부문과의 효과적인 시너지 창출, 전통 지식을 정형화된 지식 시스템과 실천방식에 통합 등이다. 구체적인 펀드의 지급은 학계,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포괄적인 혁신 생태계 지원, 지식 및 기술 이전 촉진, 간소한 혁신과 지방의 지식 증진, 여성과 청소년 대상, 지역 제3자에 대한 하위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 나. BELLA Programme

BELLA는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유럽 링크 건설(Building the European Link to Latin America)의 약자로, BELLA 프로그램은 6,000km 해저의 광섬유 케이블인 EllaLink를 이용하여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연구 및 교육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상호 연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저 케이블 건립을 통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사이의 고성능 컴퓨터 및 지구 관측 데이터공유를 촉진하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과학, 문화 및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11개 관련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지역 네트워크인 라틴아메리카 선진네트워크(RedCLARA: Cooperación Latino Americana de Redes Avanzadas)와 유럽 국가연구교육기관 협력네트워크(GÉANT)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간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이다. 컨소시엄 기관들이 부담하는 예산 총액은 5,370만 유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유럽 연합이 절반에 가까운 2,650만 유로를 부담한다.

BELLA 프로그램을 통해 두 대륙 간 직접적인 링크가 건설되면, 국가 차원의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향상된 디지털 상호 연결을 지원하고 지역 및 지역 간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이 상호 연결성, 과학, 연구, 혁신, 기술 및 고등 교육에 대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PRIDA programme

PRIDA는 '디지털 아프리카를 위한 정책 및 규제 이니셔티브(Policy and Regulation Initiative for Digital Africa)'의 약자로, PRIDA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이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및 국제텔레커뮤니케이션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전역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광대역 정보망 설치를 촉진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대해 적합하고 활성화된 규제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물론, 건강, 교육 및 농업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략도 포함된다.

PRIDA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지역에 디지털 기술을 전수하여 아프리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시혜성 원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실패하기 쉬운 원인을 파악하여 실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일반소비자 복지에 기여할 잠재력 있고 조화된 ICT 정책,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경쟁과 소비자 혜택을 증진시키고 지역 통합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정책과 규칙을 아프리카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기술협력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 ● 한국의 디지털 개발협력에 주는 함의

유럽연합이 디지털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발전시킨 배경에는 디지털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미국, 중국에 비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디지털 분야 국제행위자 역할을 모색하면서 디지털 분야를 개발협력 정책 영역으로 확장시켰다(Teevan, 2021).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라고 자부해 온 강점,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관계를 맺어 온 개발협력 파트너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과, 일반 시민에게 혜택이 파급되는 민주주의적 사업을 발전시켰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정책이 비전이나 목표 설정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정책은 한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유럽연합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고 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개발협력을 전개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술과 시장성이 미국과 중국에 뒤진다는 평판을 인식하고, 약점인 기술이나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대신, 인간중심, 시민참여형 정책을 표방하고, 이를 보장하는 규제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한국이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을 확장할 때 세계 주요국의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한국이 보유한 고유의 강점과 약점에 기반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둘째, 개발협력 상대국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전시킨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은 오랜 역사가 있고, 개발협력 상대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개발협력 지역 사이의 정기적인 회의체를 운영하며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변화하는 특성과 입장을 파악해 왔다. 이러한 정보는 유럽연합이 협력 대상 수원국에서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 대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인 대학, 연구소, 연구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을 개발한다. 유럽연합과 비교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역사가 짧지만, 최근 활발한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하면서 원조 대상국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향후 한국이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상대국가의 정보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협력 정책을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과 연계하여 전개한다. 상대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해 상대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도 함께 고려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도 개발협력이 반민주적 정권의 부와 권력 축적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개발협력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대상 국가의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이라는 기대효과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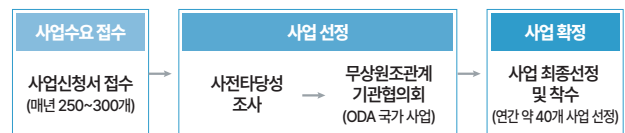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운영팀  
전문연구원 이세훈  
sehlee@kdi.re.kr

##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KSP 사업 선정 절차 및 특징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그리고 강대국 간의 기술패권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립 등 전 지구적인 공동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수단으로서 국가 간의 지식협력 수요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지식협력 프로그램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의 경우 근래 들어 수소경제 로드맵, AI 도입정책 등 첨단기술을 주제로 한 협력국의 사업 수요가 상당수 접수되었으며,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중진국 및 선진국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과거 KSP 사업의 역할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 전수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지식협력 수요가 보다 다양화·세분화되고, 협력대상국의 범위 또한 넓어지면서 국제협력에 대한 KSP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한국 정책의 선진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며 KSP로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로 이어진다. 매년 한정된 KSP 사업 예산에서 모든 협력국의 사업수요를 소화할 수는 없으므로, 지식협력을 통한 경험 효과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사업만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KSP 사업의 경우, 전 세계 정부 부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매년 250~300개의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접수된 사업신청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ODA 국가사업)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연간 약 4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KSP 사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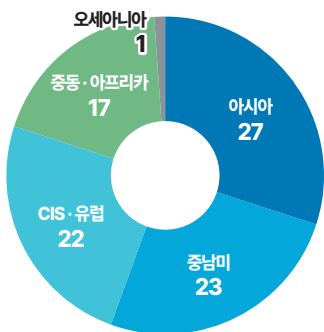
자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렇다면, 글로벌 복합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서 중 최종 선정된 총 90개의 KSP 사업 협력 지역 및 주제 분야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 지역의 경우, 아시아(27개), 중남미(23개), CIS·유럽(22개), 중동·아프리카(17개), 오세아니아(1개)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는 국가협력전략(CPS) 상 중점협력국이 밀집해 있으므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원조 효과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다자성 양자사업(국제기구 공동건설팅)의 비중이 약 40%(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다자개발은행(MDB) 차관 등 후속 연계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CIS·유럽 지역 사업이 중남미 지역 못지않게 상당 비중 선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최근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을 희망하는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등 非 ODA 국가의 수요가 증가하였기에, KSP의 협력 범위를 유럽 내 중진국 및 선진국 그룹까지 확장하려는 선택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별 KSP 사업 현황 (2020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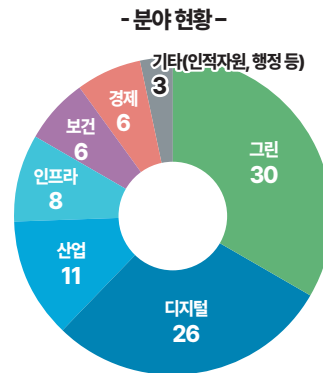


자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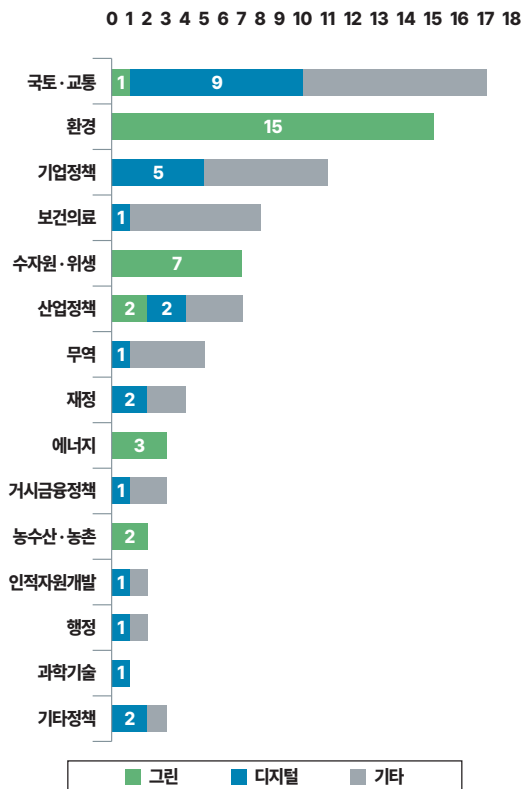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90개 사업 중 그린(30개), 디지털(26개) 분야 관련 사업이 총 56개로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국의 역점 산업 분야인 스마트시티, 그린 분야에서는 수자원, E-mobility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제의 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

[그림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분야별 KSP 사업 현황 (2020년~현재)



- 세부주제별 KSP 사업 현황(KSP 주제분류 기준) -



자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 효과적인 KSP 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 요소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발맞추어 효과적인 KSP 사업 선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협력 대상국과 공여국(한국) 관점에서의 동시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먼저 협력 대상국에서 제안한 지식협력 수요가 얼마나 적합하고 구체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KSP 사업 접수 시 협력국은 사업신청서에 사업신청 배경과 협력 주제 및 요청범위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는 KSP 사업에 대한 협력국의 지식협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등 공여국과 협력국 모두 정책 도입 경험이 부족한 신규주제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지식협력을 위해서는 협력 요청 주제에 대한 협력국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협력국에서 제안한 사업 주제가 협력국의 중점발전 과제에 근접할수록, 협력부처의 정책 입안 및 실행 권한이 강할수록 정책제언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력국에서 긴급하게 정책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KSP 사업을 연계한 후속 프로젝트 실행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정책제언 내용이 시의성 있게 반영됨으로써 성과발현이 촉진되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협력국에서 요청한 사업 범위가 단년도 지식협력사업인 KSP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지식협력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물지원형(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등) 사업은 KSP 사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프로그램 컨설팅 유형일지라도 <sup>1)</sup>사업수행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단년도 KSP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협력국에서

요청한 사업 제안 내용 중 정책컨설팅과 현물지원을 함께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만,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요청 사업주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력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정책제언의 활용 주체는 협력 대상국이므로 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협력국의 자문수요에 충실한 사업 선정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후속 성과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공여국인 한국의 관점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KSP 사업은 한국의 후속 ODA 프로젝트 연계 및 민간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제언 활용도 제고 및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는 신흥국 진출을 위한 공여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협력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양국 간의 후속 협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선정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가령, 협력국에서 도로·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 국제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입찰 이전 시점에 KSP를 통한 정책, 기술 자문이 진행된다면 향후 수주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환경 및 협력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KSP 협력 대상국의 상당수가 ODA 국가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의 ODA 정책 추진 방향성과 조화될 수 있는 협력 국가 및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ODA 정책의 총괄·조정기관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5년 단위로 종합기본계획, 매년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ODA 집행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ODA 전략상

1 협력국에서 중 장기 지식협력사업을 요청한 경우, KSP+ (다년도 KSP), 또는 EIPP(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 및 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KSP 사업을 비중 있게 선정, 기획한다면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SP 사업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협력 사업 아이디어를 협력국에 먼저 제안하여 새로운 자문수요를 창출하는 선제적인 사업발굴 또한 필요하다. KSP는 사업 구조상 연간 40개 이상의 국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사업 기획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협력국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수요기반(Demand-driven)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기반 접근은 협력국의 자문수요를 일방적으로 수렴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사업 선정 방식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효과성이 높은 사업주제를 협력국에 먼저 제안하고,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ICT와 같은 한국의 역점산업 또는 스마트시티 등 민간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정책, 기술 발전 경험을 협력국에 홍보함으로써 협력국의 새로운 자문수요를 창출(Demand Generation)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울러, 과거 KSP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협력국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KSP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례로, KDI는 2022/23 KSP 사업으로 신규 협력국인 호주와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지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호주 KSP 사업은 선진국과의 시범적인 지식협력사업으로서 향후 선진국과의 KSP 협력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양국간 상호이해에 기반한 KSP 사업 선정

결국 KSP 사업 선정의 핵심은 수요자(협력 대상국)와 공급자(한국)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협력국의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후보군을 선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KSP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이므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정책,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협력국에 적극적으로 공유 및 제안을 수행함으로써 협력국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견인하는 과정 또한 양질의 사업 선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더불어, 수요발굴 시점에서부터 후속 사업 연계, 우리 기업 진출 계획 등을 협력국 관계자와 협의한다면 실질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 선정에서 협력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협력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자 KDI에서는 매년 9월에 KSP 사업신청 설명회를 개최하여 KSP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KSP 지역별 세미나, 정책사례 가이드 등의 국제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비교우위 정책,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협력국 관계자로부터 협력국의 현황 및 지식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 KSP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이 8월~11월까지임을 고려할 때, 본 행사를 통해 협력국은 사업신청서 제출 이전에 KSP 사업 및 한국 정책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KDI를 포함한 한국의 KSP 총괄기관은 경제협력 관점에서 협력국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국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양질의 정책자문사업을 선정·기획하여 한국이 지식협력의 선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 서규혁  
aiden0725@kdi.re.kr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눈부신 경제·사회적 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다. 2023년 7월 기준 총인구수는 약 1억 명에 달하고, 이 중 대다수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층이며 부를 축적하여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이다. 2010년대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5~7%를 웃돌 만큼 쾌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베트남은 경제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과학기술 혁신 및 창업 촉진 등을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동인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베트남 창업 생태계 이니셔티브(ISEV, Initiative for Startup Ecosystem in Vietnam)도 그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진행 중에 있다.

팬데믹 상황, 기후 위기,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및 과학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는 “기술혁신” 및 “창업”을 최적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23년 KSP 사업으로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지원센터 개발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KSP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논해보고자 한다.

창업생태계란 특정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및 자원의 상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에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벤처캐피탈과 같은 자금 지원,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 전문가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베트남 창업 붐(Boom)은 2016년 베트남 창업 생태계 이니셔티브(ISEV)에 의한 National Program 844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창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844 Program이 등장하면서부터였고, 여기에서의 창업은 지적 재산(IP), 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창업생태계라 함은 위에 언급되었던 정부 기관(또는 정책), 자금 지원 기관, 액셀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 같은 육성 기관 등이 포함된다. 2022/23 베트남 KSP 사업의 관리자로서 참여



경험을 통해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TechFest를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부터 개최된 TechFest는 스타트업 및 국내외 기업, 투자자 등이 모이는 베트남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본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투자자들에게 피칭하여 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는 기회로 만들며, 행사 내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워크숍, 멘토링, 지식공유, 네트워킹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TechFest 행사에는 베트남 전 총리(Nguyen Xuan Phuc), 과학기술부 차관(Pham Anh Tuan) 등 국내외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해마다 업데이트된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21년 개최된 TechFest의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내에 있는 창업지원 재원들의 종류는 위와 같이 5개의 대분류로 나뉜다. 그리고 이는 TechFest와 같은 행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 자금을 지원하는 VC 등 19개 세부 섹터로 구분된다. 이를 ‘21년 기준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핵심 지표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약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 2) 3개의 유니콘 기업(VNG, VNPAY, MOMO)
- 3) 총 1억 달러 가치의 스타트업 11개
- 4) 15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21년 기준)
- 5) 208개 스타트업 지원펀드(베트남 내)
- 6) 108개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 7) 138개 창업 및 혁신 지원 대학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위 지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3,000개가 조금 넘는 숫자의 스타트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법령(Decision 844/QĐ-TTg)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전자상거래(e-Commerce), 핀테크(FinTech), 교육 기술(Ed-Tech) 등 ICT 및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다. 유니콘 기업이 된 VNPAY(핀테크)와 MOMO(핀테크) 모두 ICT 기반의 스타트업들이다. 디지털 전환이 현시대의 화두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의 개발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지표는 ‘21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베트남 사업을 추진 하면서 관찰해 본 결과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케이스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금은 민간을 통해 지원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VSVA(Vietnam Silicon Valley Accelerator), ThinkZone Venture 두 개 VC를 방문해 본 결과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베트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선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산업이 발달한 인접 국가에 자회사를 만든다. 그 후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회사로 주식 스와이프 통해 싱가포르 지점에서 비용을 회수한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아직까지 베트남 내에 벤처 투자자들을 위한 조세 혜택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시스템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행사(TechFest)를 통해 홍보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베트남의 창업생태계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인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벤처 투자 인프라 미비, ICT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 쏠림 현상 등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2022/23 베트남 KSP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과학기술부 측에서 가장 쉽게, 단기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를 다뤄보면서 본 기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 번째로,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다뤄야 할 단기 과제는 지원 대상의 명확화이다. National Program 844 이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지만, 2022/23 베트남 KSP 연구 진행 중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담당자와의 면담 및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서도 명확한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칠 때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된 다음에 세부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이 명확해야 시그널링 효과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확산된다. 이를 위해,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조속히 관련 정의를 마련하여 지원정책이 수혜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조화이다.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학교, 투자자, 정부, 민간 등)를 다뤄야 하고, 개별 재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관리 방안이 다르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과학 기술부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 창업 생태계의 촉진 및 규모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배분하고, 수혜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 및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진이**  
2jelee@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실장 **김대용**  
dykim@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소희**  
sohee@kdi.re.kr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연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사회 거버넌스 투명성이 증진되면서 교육, 보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 기회가 창출되는 플랫폼 경제가 대두되는 등 디지털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규제, 관련 법, 제도 등이 신속하게 제·개정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을 목표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영향을 미쳐, 지식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초기부터 규제 및 정책 여건의 미비, 인프라 부족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발협력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차원과 국가 관리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술과학에 따른 단선적 변화에서 나아가서 사고 구조, 관계 형성과 유지로, 나아가서 자원의 배분을 의미하는 정치적 관계로까지 확장된다. 디지털 시대 변화에 따라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적 영역에서도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소개하는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근 변화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디지털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가역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분야별로 어떠한 큰 변화의 흐름이 존재하는지,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정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능동적이고 능동적인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디지털  
 거버넌스로 전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과 진보적이고 열린 사고는 물론, 공공부문 관리  
 측면에서는 공급망 및 조달 과정의 의사결정에서 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

〈표 1〉 보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정부를 위한 디지털 전환전략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원
- 능동적이고 능동적인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 측정가능한 목표설정과 진보적이고 열린사고
- 공급망 및 조달과정의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 향상
-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참여 및 정책의 공동입안
- 공공기관, 학술파트너, 민간부문 간 개방형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혁신적 솔루션 달성
- 기존의 기술보다 향상된 에너지 효율 및 더 나은 자원소비 및 폐기물 관리기술 확보
-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기후 영향의 보다 깊이 있는 이해 도모

자료: Microsoft(2021), 최창용 외(2023 재인용).

둘째, 디지털 교역이 기존의 아날로그형 교역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협정의 기본 틀로는 이를 적절히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교역에 관한  
 협정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협정과 기존 통상협정이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기본  
 골격 및 핵심 조항 구성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디지털 교역 체제 아래에서도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디지털 교역 규범의 도입 현황

기존 자유무역협정	디지털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인하 → 상품 교역 확대 (시장 개방이 목표)</li> <li>• 서비스 양허 → 국경 간 서비스 공급 확대 (시장 개방이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 없는 무역, 전자결제, 전자송장 등 규정 → 상품·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시장 개방과 무관)</li> <li>•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교역 장벽 해소 → 데이터 자체의 가치 평가, 데이터 활용 방식 다양화, 상품·서비스 포괄형 신사업 도입 촉진(시장 개방과 무관)</li> </ul>

자료: 저자 작성

셋째,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을 통한 선진공여국의 노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개발협력을 전개하는데, 이는 한국이  
 보유한 고유의 강점과 약점에 기반을 두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또한 개발협력 상대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향후 한국이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상대국 정보 데이터 축적  
 활용 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EU의  
 경우 개발협력 정책을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과 연계하여 전개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도 개발협력이  
 반민주적 정권의 부와 권력 축적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개발협력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대상 국가의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이라는 기대효과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미국의  
 디지털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일관된 전략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원조조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전략 수립부터 이행 단계에서의 행위자 간 조율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정보의 신속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 목표는 디지털 개발협력의 추진에서도 강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을 설정할 때 유용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분야와 보건·교육 분야 ODA를 동시에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경험과 비교우위에 있는 디지털 ODA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코로나19 엔데믹 시기에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이후 디지털 ODA 사업의 중점 분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보건 및 교육 분야의 ODA 전략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향후 수원국의 발전 상황과 국가 발전전략, 그리고 거버넌스를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과 교육 분야 협력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정책 역량을 진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더불어 지역별 보건·교육 여건을 고려한 연구가 향후 추진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ICT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추진 전략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한국의 기술적인 우수분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주요 공여국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및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의 개발도상국 디지털전환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관련하여 협력국의 구체적인 사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개발협력 및 지식공유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분야의 KSP 사업 규모와 비율도 점차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과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이러한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디지털 분야 KSP 사업의 효과성 및 우수 사례, 관련 현안 및 정책과제 분석을 통해 지식공유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3〉 디지털 분야 KSP 사업 분야별 분포(2010~2022년)

주제 분류		사업 수	비율(%)
대분류	중분류		
경제정책	산업무역정책	15	33.3
	과학기술	7	15.6
	국토개발	1	2.2
	소계	23	51.1
사회정책	환경	3	6.7
공공부문	행정	6	13.3
	재정	3	6.7
	소계	9	20.0
기타	기타(분류외 포함)	10	22.2
합 계		45	100.0

주: KSP 분류기준을 준용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지식공유 사업이 국제정세나 대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삶의 질 향상 등 협력국과의 중장기적 상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DI 등 국내기관들의 개발협력 사업과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디지털 분야 사업들 사이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발굴, 수행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EU,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

## YKSP 7기 소개



YKSP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인재들에게 지식공유사업(KSP 정책자문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1년간의 과정을 통해 열심히 배워갈 YoungKSPians 7기 9명의 성장기를 기대해 주기를 바란다!

# CID 소식

## 유소망 • 국제학과

매년



국제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나는 언제쯤 관련 경험들을 쌓을 수 있으려나' 걱정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YKSP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네요. 이번 YKSP 7기를 통해 연구원 및 실무진 분들과 협업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

## 허원행 • 교육학/경제학

슬로바키아



저는 본 전공이 교육학인만큼, 평소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식공유형 ODA인 KSP 사업을 알게 되어 이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면접을 봤었는데, 이렇게 합격해서 멋진 연구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좋은 분들과 함께 YKSP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YKSP가 되겠습니다!

## 박현경 • 행정학

불가리아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세종의 KDI 건물로 면접을 보러 간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선선한 바람과 함께 YKSP의 일원이 되어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꿈을 꾸며 KSP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CID 소식

이지윤 • 영어영문학/경영학



어린 시절 중동 지역에서 자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 전문가라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Young KSPian으로서 KSP 사업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연구원님들 그리고 동료 YKSP 친구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

정하윤 • 경영학과



다지키스란

처음 학교 게시판에서  
 YKSP 모집공고를 발견한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는데,  
 이렇게 7기로 KSP 사업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1년간 연구원분들께 많이 배우고,  
 동료 YKSP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이나 설렙니다.  
 어엿한 개발협력 실무자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저의 첫 인턴 활동을 KDI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2023년 하반기의 시작이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진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올해와 내년의 순간들에  
 충실하게 참여하며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주시는  
 모든 KDI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활동하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

박하영 • 국제학과



우즈베키스탄

# CID 소식

**김은호** • 행정학, 중국경제통상학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KSP 사업에 YKSP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 진행할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겠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공부하면서 말로만 듣던 KDI! 그리고 대학생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YKSP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 떨리고 설렙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로 국외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느끼고 오겠습니다!

리투아니아

**임세희** • 국제학과/프랑스어학과



**전호재** • 에너지공학

캠보디아



저도 탄소중립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공학 공부를 하다가 국제개발협력이라니!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대단한 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KSP에 Young한 에너지를 뽐뽐! 감사합니다~

## 행사

## 2023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2023년 9월 11일 KDI는 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경제 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핵심기술, 기후변화,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제프리 삭스(美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지정학적 요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세계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식공유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고흥권 前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좌장

으로,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MD, 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리처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경제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 지식공유사업의 역할과 산업의 대전환 속에서 효과적인 협력의 방안을 분야별(핵심기술, 기후변화, 금융)로 제안하였다.

KSP 대표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운영 로드맵 구축, 파라과이 의료기기 관리시스템 및 인증제도 자문, 르완다 E-모빌리티를 통한 국제감축실적 활용 역량강화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진행된 민간 제안사업과 후속연계 지원 세션에서는 KSP 민간제안사업과 발굴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제안제 선정기업의 KSP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



##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기획재정부와 KDI는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및 잠재 KSP 협력국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KSP 지역전문성 및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KSP 지역세미나’ 개최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매년 주요 협력국 고위인사를 비롯한 정책실무자, 공공기관, 국제기구, NGO,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기반 확대 및 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2023년에는 유럽 지역의 기후·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을 주제로 지역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지역세미나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 혁신 관련 역내 KSP 결과 및 사업 참여 경험 공유를 통해 향후 유럽 지역에서의 사업 저변 확대 및 유럽 지역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한국의 정책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는 자문주제 선정 및 신규 KSP 사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한다. ▢



- 일 자** 2023년 9월 18일(월)
- 시 간** 09:00~14:30 (세르비아 현지 시간 기준)
- 장 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크라운플라자 / 오프라인
- 주 최** 기획재정부
- 주 관** 한국개발연구원 kotra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개회식
09:30-10:40	<b>세션 1</b> 디지털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 및 혁신을 이끌어낸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사례
11:00-12:10	<b>세션 2</b> 민간 혁신을 통한 역동적 경제로의 도약 * 민간의 혁신을 이끌어낸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사례
13:30-14:30	<b>세션 3</b>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KSP·EIPP 활용한 한국-유럽 협력모델 구상



## KDI-ADB-ADBİ 공동 컨퍼런스: 아시아 녹색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

‘KDI-ADB-ADBİ 공동 컨퍼런스: 아시아 녹색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이 2023년 10월 23~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본 컨퍼런스는 ①녹색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 논의, ② 디지털 전환이 금융,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 ③ 녹색 및 포용적 성장 전환 과정에서의 디지털 도전과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기후 변화 대응 및 포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다양한 분야와 시각에서 모색해 볼 예정이다. 국내·외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최근 디지털 전환, 녹색 및 포용적 성장의 주요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일 자** 2023년 10월 23일(월)~25일(수)

**시 간** 13:00-17:00 (도쿄 현지 시간 기준)

**장 소** 온라인

**주 최** ADB, 한국개발연구원

**주 관** ADBİ

### 프로그램

<https://www.adb.org/news/events/virtual-conference-on-promoting-digitalization-for-green-and-inclusive-growth-in-developing-asia-and-the-pacific>

### 웨비나 등록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q2G4eQJKT0WT0MW9u\\_YuZQ#/registration](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q2G4eQJKT0WT0MW9u_YuZQ#/registration)

#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p>2023년 3호</p>	<p><b>이슈톡</b>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b>동향 분석</b>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b>KSP 포커스</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b>CID 연구포커스</b>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p>	<p><b>이슈톡</b>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b>동향 분석</b>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b>KSP 포커스</b>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의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p>	<p><b>이슈톡</b>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장,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b>동향 분석</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b>KSP 포커스</b>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b>CID 연구포커스</b>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b>이슈톡</b>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b>동향 분석</b>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p>	<p><b>이슈톡</b>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b>동향 분석</b>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b>KSP, EIPP 포커스</b>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b>CID 연구포커스</b>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b>YKSP 스토리/CID 소식</b>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p>2022년 1호</p> <p></p>	<p><b>이슈톡</b>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b>동향 분석</b>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에림</p> <p><b>KSP, EIPP 포커스</b>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b>CID 연구포커스</b>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 문의** 이소희 연구원(044-550-4475, sohee@kdi.re.kr)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우혜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장

**| 편집간사** 이소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 문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